



尹대통령
내일부터
아세안·G20정상회의
02



Economy

코스피	2563.71 (+7.44)	코스닥	919.74 (-8.66)
금리 (우대금)	3.689 (-0.022)	환율 (원/달러)	1318.80 (-3.00) (1일)

韓 경제 빨간불인데... '노조 리스크'로 얼룩진 산업계

현대重 노조 무기한 총파업
현대차·기아도 교섭 결렬 등
車·조선·철강 실적 반등 속
노사 임단협 평행선 그려
글로벌 경쟁력 타격 불가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실적 반등에 성공한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계가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동조합(노조)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강력한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호황기에 접어들어 이들 업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10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실적 개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조선업계 만형 격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6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첫 파업을 벌인 뒤 지난 1일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4일과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회사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8월 22일 열린 22차 교섭에



추석 앞두고 사과 도매가격 61% 경총

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60.9%, 26.9% 상승했고 배추·무는 각각 51%, 29.7% 하락했다. 3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각종 과일이 판매되고 있다.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오르고 채소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60.9%, 26.9% 상승했고 배추·무는 각각 51%, 29.7% 하락했다. 3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각종 과일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서 기본급 12만원(호봉등급 3만 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350만원, 성과급(지급 기준에 따름), 휴양시설운영 특별예산 20억원, 미래조선산업 전환 대응 TF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 뒤 실시된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가 넘는 68.78%(410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교섭에서 9년 만에 파업 없이 타결을 이뤄냈지만 이번 파업으로 1년 만에 무분규 타결은 깨지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KG모빌리티를 제외하면 올해 임단협에 대해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기아의 성장세에 노조가 변수로 등장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8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오는 4일부터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에 합의된 특근 외에 모든 특근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을 제외한 협의와 공사 진행도 멈추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 중단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사측

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 노조도 4일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뒤 8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합법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기아도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임단협에서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외에도 노조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둘러싸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초국경 물류위한 현재와 미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물류도 대변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기간 폭발했던 국내 물동량은 잠시 소강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 성장속에 첨단 기술의 물류 분야 적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동로봇, 드론,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기술 융합에 적극 가세하면서다. 이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또 효율화되고 있다. 기업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간, 얼라이언스(동맹)간 이합집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국경 물류를 잡기 위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조명해본다.

- 주 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일 시 : 2023년 9월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 인천대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강 연 : 아우박스 박철수 대표,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대표, 로지올(생각대로) 최규범 부사장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2분기 신규 부실채권 4조... 中企 관련 부실만 2.4조

6월말 부실채권비율 0.41%
3개월 만에 1조원이나 늘어

은행들의 부실채권 발생이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2분기에만 4조원 늘었다. 1분기 3조원에 비해 1조원이나 불어난 수치로 중소기업인 등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 말

(0.4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이 8조2000억원 규모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이 각각 2조2000억원, 2000억원이다.

2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4조원이다. 전분기(3조원) 대비 1조원이나 증가한 것은 물론 작년 2분기(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신규 부실만 2조4000억원 규모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원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2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부실채권 발생이 급증했지만 정리 규모도 늘리면서 부실채권비율은 안정

적인 수준으로 유지됐다.

부실채권 정리는 대손상각과 매각이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 규모며, 여신 정상화와 담보 처분을 통한 여신회수가 각각 8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49%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p) 하락했다.

부실채권비율은 대기업여신 0.35%로 전분기 말 대비 0.03%p 하락했고, 중소기업여신은 0.

57%로 전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은 0.77%로 0.03%p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여신은 0.30%로 0.03%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2%p 상승한 0.24%다. 주택담보대출 0.16%, 기타 신용대출 0.47%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2%p씩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 1.27%로 전분기 말 대비 0.07%p 높아졌다.

상반기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6.4%다. 구(舊)대우조선해양 관련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전분기 말(229.9%) 대비 3.5%p 하락했다. 환입 효과를 제외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37.9%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문별 부실채권 증감과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재인, 홍범도 홍상 논란에 "대통령실 이나서 계획 철회해야"
▲ 박민식 "중국의 홍범도 훈수 사양... 내 정간섭 받을 이유 없어" /사진 뉴시스

▲ 민주, 채 상병 외압 의혹에 "VIP 배후 아니라면 국조 받으면 될 일"
▲ 이준석 "대구 출마하면 '가장 나쁜 놈' 과 붙을 것... 지도부는 수도권 나가야"



▲ 지역화폐 '0원'에 민주 "예산 편성할 것"... 심사 난항 예고 /사진 뉴시스
▲ 국민의힘 일각, 혁신위 제안에 '의견 분분'